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⑫ 경주 불국사 대웅전 용가(龍架)



▶ 한줄 요약
법당 대들보에 길게 걸려 있는 횃대는 '용가(龍架)'라 부르는 불교 목조각이다. '반야용선대'라고도 부른다.

# 극락 가는 반야용선…불교적 설치미술 '용가'

### 용가(龍架), 용 형상의 횃대

한국산사 몇몇 법당 내부의 대들보엔 특이한 목조각이 달려 있다. 용 형상을 갖춘 원형, 또는 사각형 긴 나무막대다. 용 형상의 간짓대는 대들보 방향으로 앞뒤 두 쇠줄에 매달려 있다. 천정에 매달린 막대 조형은 횃대 이미지와 겹쳐진다. 횃대는 옷을 거는 긴 나무막대다. 때때로 대나무로 제작하기도 한다. 법당 대들보에 길게 걸려 있는 횃대는 '용가(龍架)'라 부르는 불교 목조각이다. '반야용선대'라고도 부른다. '용가'라는 개념은 '용 형상의 횃대'라는 의미다. 개념에 조형의 생김 그대로를 반영했다. 용가 목조각은 간단하다. 긴 막대인 횃대를 다듬어 채색하고 그 좌우 끝에 끼워 넣는 두 용머리를 조각하면 된다. '용머리-횃대-용머리' 구조를 가진다. 두 용머리를 따로 조각해서 'ㄱ' 자형 용머리와 'ㅡ' 자형 횃대를 좌우에서 결합한다. 횃대는 두 용의 공통 몸통 역할을 한다. 횃대로 두 용의 몸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횃대를 절반씩 나눠 각 용의 몸통을 표현하는 대칭형 방식이고, 둘째는 서로의 몸통을 나팔꽃 덩굴처럼 나선형으로 칭칭 감게 하는 일체형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 두 용은 서로 다른 색으로 채색한다. 대개 한 용은 초록색으로, 다른 용은 황색으로 칠하여 구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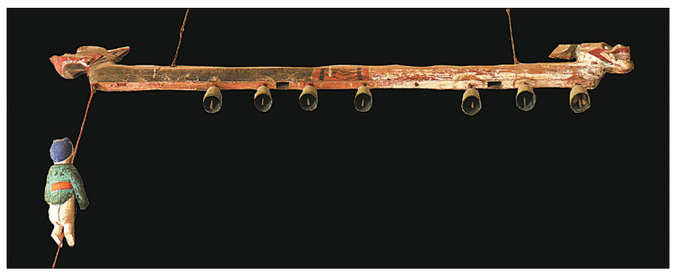
용가의 구성은 대략 세 가지 정도다. 횃대, 풍경(작은 금속 종), 늘어뜨리는 당(幢) 등이다. 용가에 매단 풍경(風磬)은 염불의식 때 사용하는 요령(搖鈴)과 흡사하다. 영락없는 요령 축소판이다. 풍경의 텅 빈 속에는 못처럼 생긴 쇠공이가 달려 있다. 용가를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면 요령 소리가 난다. 용가의 몸통 밑면에 풍경을 줄지어 매단다. 용가에 풍경을 몇 개 매다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현존하는 용가에 남아있는 풍경 매단 흔적을 살펴볼 때 풍경 10개를 다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가가 어떤 용도이기에 이토록 많은 풍경을 설치한 것일까? 용가에는 풍경 외에도 다른 의식 장엄구를 매다는 장치가 달려 있다. 용가의 중앙과 좌우 용 조형의 턱 밑에 둥근 쇠고리가 박혀 있다. 어떤 용가에는 늘어트린 줄에 동자가 매달려 있고, 어떤 용가에는 뭔가를 묶어 늘어뜨린 천 조각이 남아 있다. 용가의 목적성을 실증하는 원형은 남아있지 않다. 용가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용가를 설치한 위치에서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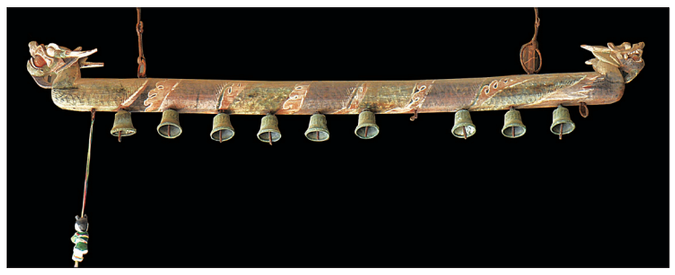
### 불국사 등 전통사찰 10여 곳에 현존

용가는 법당에서 불상을 바라볼 때 향좌측, 즉 서쪽 대들보 밑면이나 측면에 매단다. 법당은 통상 예경을 올리는 의식단을 상중하 삼단으로 편재한다. '상단-정면 중앙-불보살단, 중단-향우측(동쪽)-호법신중단, 하단-향좌측(서쪽)-영가단'과 같이 구성한다. 용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단인 영가단에 설치한다. 영가단엔 영가의 위패를 두고 감로탱을 건다. 49재 등 천도재를 봉행한다. 용가는 영가단의 의례 장엄구의 하나였다. 천도재가 있을 때 용가에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나무인로왕보살' 등의 당(幢) 깃발을 걸기도 하고 하얀 지화(紙花)를 내걸기도 했다. 의례 집전 스님은 의식 중간 중간에 용가에서 늘어뜨린 줄을 흔들어 줄지어 매단 풍경을 요란하게 울린다. 풍경의 쨍한 금속성 소리는 영가가 이승과의 집착을 끊고 오직 극락왕생에 오르는 한 길에만 집중하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때 용가는 반야용선의 의미를 동시에 가졌다. 종을 매단 횃대를 용으로 조형한 이유도 용가가 나무로 만든 또 하나의 반야용선이라는 상징성에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용가는 요령 같은 풍경을 줄줄이 매단 의례 장엄구이면서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용가가 가진 반야용선의 상징적 의미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비로전), 대구 환성사 대웅전, 영천 영지사 대웅전 용가 등에 매달려 있는 동자의 표현에서 극적으로 승화된다. 상징성에 낭만성이 결합하여 드라마틱한 서사를 풀어낸다. 그에 따라 용가는 악기의 일종이면서 의식에 필요한 소품을 내거는 횃대이면서 반야용선이라는 중의성을 갖는다. 그것은 예술적 창의성으로 기능성을 종교적 교의 차원까지 적극 해석해낸 성과다. 조형의 단순함에 비해 조형이 간직한 뜻은 깊고도 융숭하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용가


대구 동화사 대웅전 용가


청도 운문사 비로전 용가


경산 환성사 대웅전 용가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용가

**용가는 나무로 만든 반야용선**
**법당의 영가단 대들보에 설치**
**운문사 용가에 동자 매달리고**
**수타사 용가엔 극락조 앉아**

용가는 현재 10여 점 현존한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청도 운문사 비로전(대웅보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산 환성사 대웅전, 대구 용연사 극락전, 언양 석남사 대웅전(따로 보관 중),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대구 동화사 대웅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영천 영지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대웅전,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등에 남아 있다. 여수 흥국사와 홍천 수타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남지방에 현존하는 지역 편중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팔공산 자락의 산사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용가의 길이는 보통 1.8m 안팎이다.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수타사 용가이고, 가장 긴 것은 용연사 용가다. 수타사 용가는 1m를 조금 넘고, 용연사 용가는 극락전 어간 폭을 훌쩍 넘는다. 특히 용연사 용가는 거칠고 투박하다. 그냥 한 그루 나무 자체를 용가로 삼았다. 통상 서쪽 대들보 아래에 대들보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어간의 두 대들보에 걸쳐서 정면 닫집 아래에 뒀다. 풍경도 매달려 있지 않아 용가의 범주에 넣기도 애매할 지경이다.

현존하는 10여 점의 용가는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하다. 주목할 만한 공동 특성이나 용가 저마다가 가진 독특한 개성을 두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사찰명만 적는다.

△동자가 매달려 있는 용가(매달려 있는 사람수): 청도 운문사(1명), 영천 영지사(1명), 언양 석남사(3명), 경산 환성사 용가(1명).

△용가에 극락조(파랑새)가 앉아 있는 용가: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용가.

△특별한 조형기법: 불영사 용가(판목에 투각), 여수 흥국사 용가(굽이치는 두 마리 용 조형과 횃대를 따로 조각하여 결구).

△용가에 매단 풍경 개수(현존 수/원래 수): 청도 운문사(7/10), 언양 석남사(5/8), 여수 흥국사(5/10), 영천 은해사 백흥암(1/?), 경산 환성사(9/10), 대구 동화사(8/9), 울진 불영사(2/6), 영천 영지사(11/12), 대구 용연사(0), 의성 대곡사(4/10), 김천 직지사(5/10), 홍천 수타사(6/6), 경주 불국사(10/14). 두루 살펴볼 때 용가의 몸통에 매다는 풍경의 개수는 대체로 10개를 표준으로 삼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풍경이 매달린 용가는 영천 영지사 대웅전의 용가다. 11개나 달려 있다. 원형대로 남아있다면 불국사 대웅전 용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14곳에 풍경을 매단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코끼리, 극락조, 용을 소재로 한 용가

한국산사 법당 장엄의 한 장르로 조영한 용가의 전형으론 경산 환성사 대웅전 용가를 손꼽을 수 있다. 나선형으로 칭칭 감은 두 용의 몸통으로 표현한 횃대, 용 몸통에 매단 10개 풍경, 반야용선의 상징성을 구현한 줄에 매달린 동자 등 용가의 보편적 조형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쉬운 점은 용가 조형이 갖는 단순함에 뒤따르는 평범함에 있다. 그때 불국사 대웅전의 용가는 한국산사 법당 장엄에 나타나는 독특한 장엄구인 용가를 대표할 만하다. 불국사의 용가는 대단히 실험적이고 전위적이다. 오늘날 전위예술의 한 장르인 설치미술의 특성이 강하다. 다양한 소재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설치예술이 갖는 전위와 파격의 면모를 보여준다. 불국사 대웅전의 가구구조에서 대들보에 수직으로 걸쳐있는 충량은 일반적인 용뿐만이 아니라 사자와 코끼리로도 표현했다. 사자와 코끼리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상징으로서 본질적으로 상구보리(진리)와 하화중생(실천)의 교의를 가진다. 통도사 불이문 충량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호랑이, 코끼리 형상이 나타난다. 불국사 용가는 충량 가구를 활용하여 코끼리가 입에 물고 있는 기발한 방식으로 조영했다. 코끼리는 세 개의 상아를 가진 흰색 코끼리다. 코끼리 입에 쇠고리를 박아 두 줄의 쇠줄을 좌우로 늘어트려 용가와 연결했다. 코끼리가 용가를 입에 물고 있는 형상이 됐다. 조형에 힘이 실리고 구성이 예사롭지 않다. 조형 구도에서 파격적인 발상이 인상적이다. 용가의 몸통에는 나선형 채색은 남아 있지만 양 끝의 용머리는 없다. 나선형 채색은 용틀임하는 용의 의미를 갖는다. 몸통 밑면에는 모두 14곳의 풍경을 매단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는 10개만 매달려 있다. 풍경을 시설한 밀도가 조밀하다. 시각적인 조형에 청각의 감각이 스며들었다. 게다가 횃대에 새가 날아와 앉았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 용가에도 새가 앉아 있다. 새는 극락조다. 극락조는 극락정토의 알레고리다. 파랑새라고 불러도 조형의 의미는 살아난다. 파랑새는 관음보살의 변화신이다. 극락조든 파랑새든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의 상징성에는 변함이 없다. 흰색 코끼리, 극락조, 용, 풍경의 소재는 서로 상입상즉한다. 그 소재 조합으로 구성한 용가는 방편으론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이고, 본질에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의 실천을 일깨운다. 설치예술가처럼 내부 가구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의의 가르침을 시청각적 상징으로 풀어낸 안목이 돋보인다. 평범한 용가를 비범하게 재해석했다. 예술은 때론 종교적 교의를 시각화하는 탁월함을 보여주곤 한다. 불국사 대웅전 용가 목조각도 그 중의 하나다. 〈사진작가〉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